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10/27)	다음 주(11/3)	11/10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윤경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이빛나 성도
성경 봉독		이빛나 성도	이윤경 성도	편재천 성도
식사 준비		이윤경 순	이강진 순	장윤경
정리		이강진 순	이윤경 순	김윤기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43호 2019.10.27.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25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4장, 찬송가 384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32편	이	빛	나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야고보서 2장 1-13절	김	윤	기 목사
[심 판 을 이 기 는 공 흥] [성 찬 식]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491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헌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윤	경 성도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박철호 서리집사
 본 문: 미가 1장
 주 제: 야곱의 허물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43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시 63:1-4
 설 교: 광야에서 부르는 찬양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 주일 오전10시30분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 주일 오후1시00분

□ 설교 노트: 약 2:1-13, 심판을 이기는 공흠

1.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1-3절). 사람들이 차별하여 판단하는 악한 생각과 달리 주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4-5절). 부자는 오히려 가진 힘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하며, 아름다운 이름, 즉 교회와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6,7절). 더 나아가 차별은 율법이 정죄하는 죄이며, 간음과 살인과 함께 거론됩니다(9,11절). 결정적으로 차별하는 행동은 공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13절). 그러나 이는 주님의 교회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2.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 앞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죄함을 받지 않는 형제입니다.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가 정죄하지 않으시고 공흠과 사랑으로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약 1:12,18,21,27).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공흠의 하나님입니다(5절). 그 공흠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합니다(13절). 주님의 공흠은 우리를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대신 죄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받으며,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신 감당합니다. 그 공흠을 입은 교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사 61:1).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위로 하러 오신 분입니다(사 61:1,2; 눅 4:18,19). 누군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죄로 인한 모든 빛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마 18:27,33). 공흠과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마 6:14,15). 그것이 주님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소명입니다(출 22:21). 주님의 공흠과 사랑을 드러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 그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43주일 - 십계명에 관하여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